성 명	한글 (한자, 예명)	성우향 (성판례)	지역	화순군	사 진
	분 야	국악	출생 ~사망	1935~2014	
개요	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보유자 : 동편제 대가– 춘향가				
연보	▪ 1935년 화순군 출생 ▪ 1977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1988 대상 ▪ 2002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▪ 2011년 옥관문화훈장 ▪ 2009~2013 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				
생애 및 활동	성우향(成又香)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태어난 판소리 여성명창으로 본명은 성판례(成判禮)이다.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, 명고수이자 정가 및 피리의 명인 성차옥의 조카이다. 큰아버지(성차옥)은 소일거리 삼아 사랑방에 동네 애들을 모아 놓고 소리를 가르쳤다. 성우향은 7세 때부터 그에게서 가곡과 평시조를 배웠다고 기억을 더듬는다. 큰아버지와 친구였던 목포 안기선(고 안행련 씨 부친) 씨가 화순에 왔을 때 춘향가를 배웠고, 한때는 남원 강도식(姜道植) 씨를 찾아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떼었다. 아버지와 오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일창극단에 입단(12세)하여 조상선, 박후성, 한일섭, 임소행 씨 등과 전국 공연을 다니고 임방울 창극단에서도 연기로 이름을 날렸다. 해방 뒤 잠시 집에 있으면서 박동실(朴東實) 선생한테 심청가를 뗀 성우향은 20세 되던 해 보성군 회천면에 있던 정응민 선생을 찾아가며 오늘의 여류 명창으로 기본기를 닦기에 이른다. 7년 동안을 정씨 문하에 있으면서 적벽가, 수궁가, 춘향가, 심청가 순으로 네 바탕을 연마했다. 이 때 정응민선생로부터 배운 것이 김세종제 춘향가이다. 1955년 전국명창대회에서 1등을 한 이래 KBS 전국명창대회 최우수상(1974년), 전주대사습대회 판소리 부문 대통령상(1977년)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. 우람한 체구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의 무겁고 힘찬 소리는 나약한 남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도처에서 환호를 받았다. 심청가 완창(1972년, 명동국립극장, 5시간), 1974년 춘향가 완창(6시간), 1977년 흥보가 완창(3시간 30분)이 입증하듯 그의 건강은 천부적으로 타고 났다.				
기록물 참고문헌	여수시립국악단카페 한국전통예술신문(http://www.gugakpeople.com)				
기 타	▪				